

孝 行 篇

詩曰、父兮生我 母兮鞠我、哀哀父母 生我劬勞。欲報之德 昊天罔極。

⇒《시경》에 이르기를, 아버님이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이 나를 기르시니, 아! 슬프도다, 부모님이시여!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 애쓰시고 고생하셨다. 그 깊은 은혜를 갚고자 하나, 은혜가 하늘과 같아서 다함이 없도다.

⇒《詩經》で言うのにお父さんが私を生んでお母さんが私を育て、あ! 悲しい、ご両親! 私を生んで育てるために苦勞しました。その深い恩恵を返そうとするが、恩恵が天のように終えることが出来ない。

子曰、孝子之事親也 居則致其敬 養則致其樂 病則到其憂 喪則致其哀 祭則致其嚴。

⇒공자가 말하기를, 효자가 부모를 섬김에 있어 기거할 때에는 그 공경을 다하고, 봉양할 때에는 즐거움을 다하고, 병에 걸리셨을 때에는 근심을 다하고, 돌아가셨을 때에는 슬픔을 다하고, 제사를 지낼 때에는 엄숙함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孔子が言うのに孝子が親を仕えるにあつて寄居する時にはその恭敬を尽して、奉養する時には楽しさを尽して、病氣にかかった時には懸念を尽して、亡くなった時には悲しみを尽して、祭祀を行う時には嚴肅さ尽さなければならない。

子曰、父母在 不遠遊 遊必有方。

⇒공자가 말하기를,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는 멀리 떠나지 말 것이며, 떠나되 반드시 방향을 알려야 한다.

⇒孔子が言うのに親が生きている時には遠くへ行かないこと。行く時には必ず方向を知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子曰、父命召 唯而不諾 食在口則吐之。

⇒공자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부르면 즉시 예, 하고 대답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나오며, 음식이 입에 있으면 이를 뱉어야 한다.

⇒孔子が言うのにお父さんが呼べば直ちにはい! と答えてもじもじしないで出て、食べ物口にあればこれを吐かなければならない。

太公曰、孝於親 子亦孝之 身既不孝 子何孝焉。

⇒태공이 말하기를, 내가 부모에게 효를 하면 내 자식이 또한 내게 효하기 마련이다. 내가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았는데 자식이 어찌 나에게 효를 하겠는가?

⇒太公が言うのに私が親孝行をすれば私の子がまた私に孝行するものと決まっている。私が親に孝行をしなかったら子がどうして私に孝行をするのか?

古書との出会い 孝行篇

孝順 還生孝順子 忤逆 還生忤逆子 不信 但看^簷頭水。點點滴滴不差移。

⇒ 부모에게 효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또한 효하고 순종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며
패륜아는 또한 패륜아 자식을 낳을 것이니, 이를 믿지 못하겠거든 저 처마 끝의
낙수를 보라.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이 어김없이 정확하지 않은가?

⇒ 親に孝行して順從する人はまた孝行して順從する子を生むはずで、悖倫兒はまた悖倫兒
子を生むはずだ。これを信じ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らあの軒先の落水を見ろ。滴滴落ちる
のが間違いなく正確ではないか?